

# 국가어업지도선 구명·소화설비 연간단가계약 과업지시서

## □ 일반사항

### ○ (구명뗏목)

- 감독공무원 입회하 의장품을 신품으로 교체후 컨테이너를 조립하고 표시기준에 의하여 도장하여 설치대에 견고하게 거치한다.
- 자동이탈장치는 취외후 작동시험을 실시하며, 유효기간이 있는 일회용 자동이탈장치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신품으로 교체한다.
- 기본정비는 '어선설비기준' 별표2(팽창식 구명뗏목등의 정비기준)에 따라 진행하여 중복점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.

### ○ (구조정)

- 구조정은 '선박구명설비기준' 별표15에 따라 구조정 및 진수장치 작동 검사를 매년 실시하며, 매 5년 원치 제한하중 작동검사를 실시한다.
- 정기적 검사시 해당작업을 수행한 정비업체는 적합확인서 및 정비 기록·인증서류를 선주에 2부 제출한다.

### ○ (소화설비)

- 이동식 소화기는 '선박소방설비기준'에 따라 점검하며, 중량미달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소화제로 충전한다.
- 고정식 소화기장치는 Line 및 Alarm 시스템을 점검하고, 실린더 중량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충전작업을 실시한다.
- 지도선에 설치된 폼시스템, 워터미스트, 디프패트 프라이어 장치등 주요 국부 소화장치는 매년 작동검사를 실시한다.

### ○ (기타장비)

- EEBD 및 SCBA 실린더는 매년 점검하며, 방수복은 매 2년 버블 테스트를 진행하여 원활한 검사수검을 도모한다.
- 지도선내 각종 신호탄류(형상물, 로켓낙하산부신포등)의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교체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한다.

## □ 이행사항

- 구명·소화설비 정비·검사후 합격증서, 사진첩을 작성하여 대상선박 및 선주, 담당 선박 검사관에게 각 1부씩 제출한다.
- 구명·소화설비의 정비는 정기적 수리와 연계하여 진행하며, 수리기간 내에 정비를 완료하여 차기 정비일정이 단축되지 않도록 한다.
- 내역의 변경 및 추가비용 발생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 공무원을 경유 수시 보고하고 협의하여 정비한다.
- 단가계약 내역과 상이한 수량에 대한 추가비용 발생시 연간단가 계약과 동일한 실비로 추가 정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과업수행자의 사정에 의해 협의된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 지불, 선급정지·탈급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- 지도선이 특별한 사유로 선적지(부산) 이외의 장소에서 수리를 진행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정비·검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.
- 계약기간중 1회이상 팽창식 구명뗏목 투하·퇴선훈련을 지원하며, 각종 구조·탈출장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.
- 해양수산부장관 인정 업체에 의한 점검·정비 조건에 따라,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 □ 입찰참가조건

- '어선법' 제25조에 따른 팽창식 구명뗏목정비 지정사업장으로 한국선급에 구명·소화설비 전문공급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한다.

## □ 안전관리조치

-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·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 재해처벌법 제4조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.
- 과업수행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등이 포함된 안전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한다.